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음 11월 28일) 제17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성탄 전야에도 촛불드라마는 이어졌다... 축제 분위기 속 시민들의 한목소리

“촛 퇴진... 헌재, 탄핵 신속 인용하라”



지난 24일 오후 전주시 총경로 사거리에서 열린 제7차 전북도민총궐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광화문 9차 촛불집회 · 전북도민 7차 총궐기

광화문에선? - 가수 윤종신의 뮤직비디오로 문 연 후 시국발언 · 1분 소등 ·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이어가

전북에선? -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캐럴송 개사 재치있는 모습 연출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 얻어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퇴진 촉구'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70만2,000여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퇴진행동은 "연인원 기준 광화문에 60만명, 지역 10만2,000명 등 70만2,000여명이 참여했다"며 "9주째 촛불집회임에도 여전히 열기가 뜨겁다. 유모차 등 가족단위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성탄절이던 이날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도에 머무르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추위도 막지는 못했다.

오후 5시가 넘어서 시작된 본집회에서는 주회측 추산 60만명(경찰 추산 3만6000명)의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 ▲황교안 권한대행 사퇴 등을 촉구했다. 본 집회는 현 시국을 영상화한 가수 윤종신의 뮤직비디오 '그래도 크리스마스'로 문을 열었다.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시국발언도 이어졌다. 1분 소등 퍼포먼스도 벌어졌다. 퇴진행동은 오후 6시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 및 주변 빌딩 소등 행사를 진행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퍼포먼스다. 특히 세종로 종합청사 건물상단에 레이저로 '박근혜 구속 조기탄핵' 글씨를 띄우기도 했다.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지난주와 같이 청와대 · 총리공관 · 헌재 방면으로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촛불

을 들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 무조건 즉각퇴진' '헌재는 조기탄핵' '황교안도 물러나라' 등을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모였다. 정권집회 대신 마련된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즐기기도 했다.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가수 연영석, 성악가 루이스 초이, 서울재즈빅밴드 등이 공연을 선보였다. 시민들의 캐럴 '노가바'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공연도 진행됐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도 촛불이 도심 곳곳을 환하게 밝혔다.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지난 24일 오후 5시부터 전주 총경로에서 7차 전북도민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2,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성탄의 들뜬 마음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나라의 안정이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마음 속에 담았다.

성탄 전야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에는 남녀노소들이 서로 서로 손을 부여잡고 추위를 견뎌내며 직구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성탄 분위기에 맞춰 캐럴을 시국상황에 걸맞게 개사해 입을 모아 부르는 등 재치 있는 모습들이 연출돼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박근혜 하야해야 메리크리스마스"를 이구동성으로 목놓아 부른 시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매주 해왔던 것처럼 촛불을 손에 움켜쥐고 행진을 이어갔다. 그 외에 군산과 익산, 정읍, 임실 등 도내 각 시·군에도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뜨거운 열기에 시국 온도를 올렸다. /김민근 기자

인구절벽 본격화

출생자 수 '줄고' 사망자 수 '늘고'

10월 기준 출생아 1000명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사망자는 1200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저출산·만혼 여파로 올해 10월 신생아가 역대 가장 적게 태어났다. 월별 출생아 숫자 감소폭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숫자는 11개월 연속 줄었다. 누적 혼인 건수까지 덩달아 떨어져 출산율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해 인구절벽 현상이 전북에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는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또한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봐도 출생아 수는 1만1,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3%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가 감소한 이유는 결혼이 줄었기 때문이다. 10월 한달간 혼인 건수는 6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00건 정도 감소했으며, 1-10월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어든 6,600건을 기록했다. 혼인이 줄었지만 이혼은 소폭 증가했다. 올해 1~10월 이혼은 3,3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듯 10월 사망자 수는 1,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1-10월 누적 기준도 0.9% 증가했다. /인재용 기자

정호성·김종 특검 출석... 김종 '묵묵부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성탄절인 25일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한이 70일로 한정된 데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호성(49·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오후 1시1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통화 녹취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끝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씨에게 문건을 넘긴 경위,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이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에 걸쳐 조사한 김 전 차관도 이날 다시 소환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출석한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느냐" "유진룡 문체부장관에게 인사청탁 관련 전화한 것이 맞느냐"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뉴시스

- ▶ 매일 INDEX
- 3면 올해 전주시정 결산
- 7면 정읍시보건의료 한해 성과

도민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라북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www.assem.jeonbuk.kr